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19세기 페루 리마의 사례*

서지현
부경대학교

서지현(2023),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19세기 페루 리마의 사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1), 113-144.

초록 1535년 건설된 페루의 수도 리마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식민지배 거점으로 성장하며 도시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 400여 년간 식민 도시의 성격을 유지해왔다.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식민 도시로서의 특징을 큰 변화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리마의 식민 도시 공간은 증가하는 인구와 산적한 도시 문제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중반 이후 리마가 어떻게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식민 도시 리마의 도시 공간은 식민지배 권력과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식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물리적으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할 목적으로 건설된 리마 성벽이 중요한 경계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도시 내 인구 성장에 따른 인구 밀도 증가, 성벽 내 주거 공간의 부족과 주거 공간 내 인구 밀집 문제, 각종 도시 문제 등이 심각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식민 도시에서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와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결정지었던 리마 성벽은 18세기 중반 이후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온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869~1872년 사이 실현된 리마 성벽 철거는 리마가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리마의 도시 공간은 식민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재현 공간에서 국가의 근대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1879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으로 중지되게 되었다. 하지만 1850~1870년대 리마의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도시 근대화의 중요한 초석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식민 도시, 근대 도시, 리마 성벽, 위생주의, 페루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2093112).

I. 서론

도시사, 즉 도시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19세기 등장하여 유럽과 북미에서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변동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민유기, 2007: 21).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는 산업화 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근대화가 본격화되었다(Tarazona, 2021: 61). 이 과정에서 근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주요 도시들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구도심과 외곽지역은 다양한 도시 개혁과 도시 확장 계획의 대상이 되었다(Navarro Jiménez, 2017: 3). 또한, 이 시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심화로 인해 유럽에서는 산업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2 제정기의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1853~1870년)이다.¹⁾

한편, 19세기 형성된 유럽의 산업 도시들은 갖 독립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수도를 근대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Navarro Jiménez, 2016: 1-2). 오스만의 파리 개조의 영향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넓은 대로와 가로수길이 더욱 빈번하게 건설되었고, 그 주변에는 파리개선문과 같은 기념비적 공공 건물이 세워졌다(Tarazona, 2021: 62). 특히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의 자유주의 정권과 상업 엘리트들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서구식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실증주의와 과학 및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과 통신 기술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 공간에는 새로운 주거 공간과 대로가 건설되었으며 기능적인 공간 배치가 이뤄졌고, 도시 공간에 시장의 논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Navarro Jiménez, 2016: 3).

페루 수도 리마의 경우, 1535년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식민 지배 거점으로 성장하여 도시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 400여 년간 식민 도시의 성격을 유지해왔다.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식민 도시로서의 특징을 큰 변화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19세기

1)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비드 하비(2019)를 참고할 수 있다. 파리 이외에도 1859년 이후 바르셀로나의 도시 계획, 1870년의 리스본의 도시 계획은 리마의 도시 근대화와 많은 유사점을 지녔다(Navarro Jiménez, 2017: 4).

중반경에 이르면 리마의 식민 도시 공간은 증가하는 인구와 산적된 도시 문제로 과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중반 이후 리마가 어떻게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식민 지배 거점으로 스페인령 리마의 도시 공간은 어떤 성격을 가졌으며, 그에 따른 공간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졌었는가? 두 번째, 19세기 중반 이후 식민 도시적 도시 공간 구조와 기능은 왜 변화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스페인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리마가 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식민 도시 공간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리마 도시 근대화의 전환점인 리마 성벽이 철거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리마 성벽 철거 이후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시 공간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19세기 리마의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 관해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에 관해 논할 것이다.

II. 스페인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리마의 성장과 도시 구조

1. 리마 성장의 배경

스페인 정복자들이 리막 계곡(valle de Rímac)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533년부터였다(Cárdenas, 2020: 22)²⁾. 스페인 정복자들은 1534년 12월 4일 고산 지역에 있는 하우하(Jauja)³⁾에 식민 도시를 세웠으나, 이내 해안지역에 식민

2) 스페인이 페루를 식민지배하기 이전 현재 리마가 위치하고 있는 리막 계곡 지역에는 와리(Huari 혹은 Wari), 찬카이(Chancay), 치무(Chimú), 잉카(Inca) 등 여러 문명이 자리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페루를 지배하기 직전인 1440년~1532년 사이 잉카가 리막 계곡 지역을 지배했다(Giráldez, 2015: 59).

3) 하우하는 중부 고산 지역의 매우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만타로 계곡(Valle de Mantaro)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리마 주와 접하고 있는 중부 안데스 주 중 한 곳인 후닌(Junín)주에 속한다.

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1535년 1월 8일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는 파차카막(Pachacamac)에서 3명⁴⁾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해안지역으로 보내 새로운 식민 도시를 건설할 곳을 찾을 것을 명했다(Robin and Terzon, 1973: 1). 1535년 1월 18일 원정대의 조언에 기반해 피사로는 리마를 건설했으며, 이후 리마는 스페인령 남아메리카의 행정 중심지⁵⁾로 자리잡으며 ‘왕들의 도시(Ciudad de los Reyes)’로 불렸다(Robin and Terzon, 1973: 1).

정복자들이 판단하기에 리마 계곡 지역은 식민 도시 건설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태평양과 가까워 고산 지역과 비교할 때 스페인 본국으로의 접근이 용이했다(Cárdenas, 2020: 22). 또한, 리마 강에서 관개용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농사를 짓기 비옥한 땅이었다. 이 때문에 페루 부왕령 설치 이후 리마는 식민지 본국과 남아메리카 식민지 간 전략적 연결 지역이자 식민지배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Coronado, 2020: 16, 34).

지리적 이점 이외에도 스페인의 식민 본국과 식민지의 광산 경제를 연결하는 항구에 가까운 입지 조건은 리마가 성장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었다. 1545년 알토 페루(Alto Perú, 현재 볼리비아의 포토시)에서 은 채굴을 위한 광산 도시가 건설되었다. 식민시기 포토시(Potosí)는 멕시코의 사카테카스(Zacatecas) 및 과나후아토(Guanajuato)와 함께,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경제 중심지였다. 1580년에서 1630년 사이 멕시코와 페루 부왕령에서는 이들 광산에서 추출된 은 생산으로 경제적 붐을 이뤘다(블루엣 & 블루엣, 2010: 106).

광산 경제의 붐과 더불어 부왕령이 위치한 스페인의 정치·행정적 지배 거점으로서 리마로 주변의 다른 식민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뤄졌다(Coronado, 2020: 43). 또한,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 스페인 본국과 식민지 곳곳에서 교류되는 상품들의 집결지로서 리마에서는

4)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보낸 원정대에는 루이스 디아스(Ruiz Díaz), 후안 테요(Juan Tello), 알론소 마르티네스 데 돈 베니토(Alonso Martín de don Benito)가 포함되어 있었다.

5)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4개의 부왕령을 설치했는데, 1535년 멕시코에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부왕령을 설치한 후, 1542년 리마에 페루 부왕령을 설치했다.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뤄졌다(Coronado, 2020: 42-43). 이 시기 리마의 대표적인 항구인 카야오(Callao) 항은 에콰도르의 과야킬(Guayaquil)항, 칠레의 발파라이소(Valparaíso)항 등과 항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스페인 본국의 카디스(Cádiz)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Coronado, 2017: 64). 이와 같은 카야오 항의 전략적인 위치와 리마의 상업 활동 증가로 16세기와 17세기 사이 리마는 스페인령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한 곳이 되었다(Coronado, 2017: 64).

2. 식민 도시 리마의 도시 구조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정치·경제적 식민 거점으로 성장한 식민 도시 리마의 도시 구조는 스페인의 정치 권력과 이데올로기(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성격)를 반영하고 식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형성되었다(Coronado, 2020: 42). 16세기 중반 이후 리마의 도시 구조는 격자형 도심(Damero de Pizarro)⁶⁾, 두 개의 원주민 집성지(Barrio de San Lázaro와 Barrio de Cercado), 교회 교구(parroquia)가 위치한 도시 주변부라는 3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Giráldez, 2015: 64)⁷⁾. 한편, 17세기 중반경 리마는 식민지배 거점으로 해적 및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식민 도시의 인구와 부를 방어할 목적으로 1684~1687년 사이 성벽(Muralla)을 건설했다. 이후 리마 성벽은 19세기 후반 철거될 때까지 리마의 도시 경계를 정하고 식민 도시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아래에서는 식민 도시 리마의 도시 구조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세기 중반 이후 리마의 도시 구조는 행정과 종교 권력을 반영하는 격자형 도심, 원주민 집성지, 교회의 교구들이 위치한 주변부

6) 리마의 격자형 도심은 다메로 데 피사로(Damero de Pizarro) 혹은 다메로 프린시팔(Damero Principal)이라 불리며, 오늘날의 리마 역사 지구(Centro Histórico)에 해당한다. 식민지 시기 당시 격자형 도심의 총면적은 약 214헥타르였다.

7) 1553년의 인디아스 법에 따라 리마의 도시 구조는 행정과 종교 권력의 중심지인 격자형 도심과 주로 원주민, 몰라토 등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변부 지역으로 형성되었다(Coronado, 2020: 38).

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먼저, 리마의 격자형 도심은 식민지배 전부터 유지되어 온 리마 계곡 지역의 원주민의 세계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정복자들의 권력 분배를 도시 공간에 반영했다. 스페인 정복 이전에는 도농 균형 관리를 했으나, 정복 이후 정복자들은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기 시작했다(Giráldez, 2015: 62-63)⁸⁾. 리마 건설 초기 격자형 도심은 메인광장(Plaza Mayor)⁹⁾과 17개의 만사나(Manzana)¹⁰⁾로 구성되었다(Khahatt, 2014: 38). 하지만 이후 리마 격자형 도심의 만사나는 117개까지 늘어났다.

격자형 도심의 시작은 메인광장에서 출발한다. 메인광장에는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주요 건물들이 세워졌다(Cárdenas, 2020: 23). 즉, 메인광장에는 식민지의 정치, 행정,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는 부왕청, 시청(Cabildo), 대성당(catedral)이 세워졌다(Giráldez, 2015: 65-66; Coronado, 2020: 86). 3개의 건물은 현재 각기 대통령궁(Palacio de Gobierno), 리마시청, 리마 대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민시대 행정·정치 및 종교적 권력 상징의 공간으로서 메인광장은 그밖에도 시장, 시민 및 종교 축제를 위한 공공 공간, 군대 집결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Panfichi, 2004). 때문에, 식민 시기 메인광장으로부터 먼 곳에서 거주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Panfichi, 2004). 또한, 리마의 메인광장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식민 도시들과는 달리 격자형 도심의 한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리막(Rímac) 강변 가까이에 위치했다(Khahatt, 2014: 38).

한편, 메인광장 주변은 만사나들로 구성된다. 각 만사나 내부는 4개의 솔라르(solar, 구획)로 구분된다. 식민 정복 초기 피사로(Pizarro)는 정복자들과 주요 교파에 메인광장 주변의 만사나를 분배하였다(Coronado, 2017: 63; Cárdenas,

8) 다만, 정복자들은 정복 이전의 관개망을 그대로 이용했다(Coronado, 2017: 63).

9) 오늘날 플라사 데 아르마스(Plaza de Armas)라고 불린다.

10) 만사나(Manaza)는 스페인어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 구획을 의미하는 블록(Block)을 지칭한다. 만사나는 가로와 세로 각각 125m로, 11m 너비의 거리로 구분된다(Cárdenas, 2020: 23). 본 논문에서는 식민시기의 용어를 그대로 쓰기 위해 스페인어 원음인 만사나로 명명하기로 한다. 오늘날 스페인 이외의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블록(block)을 cuadra라고도 부른다.

2020: 23). 1550년 이후 프란시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누스회, 메르세드회 등 각종 교파가 리마에 도착했고, 이들은 직접적인 토지의 매입, 기부, 식민정부의 분배 등으로 식민 도시에서 넓은 토지를 차지했다(Coronado, 2017: 64). 교파들은 분배받은 토지에 거대한 성당, 수도원, 작은 광장 등의 건물을 건설하며, 공공 공간에서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자 했다(Coronado, 2017: 64).

한편, 메인광장과 만사나로 이뤄진 격자형 도심의 외곽지역은 식민정부가 형성한 원주민 집성지와 교구들로 구성되었다. 식민 권력은 식민 도시의 공간을 인종적 분리를 통해 관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식민 행정법을 공표하여 정복자와 원주민 간의 사회·공간적 분리를 실천하고자 했다. 먼저, 1549년 리마 아우디엔시아(Audiencia)¹¹⁾는 법령을 통해 원주민의 주거 분리를 규정했다(Coronado, 2020: 39). 16세기 중반 부왕 프란시스코 데 톨레도(Francisco de Toledo) 집권 시기에는 원주민들의 식민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 원주민 집성지(reducciones indígenas)를 만들었다. 당시 리마 사회는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 종교인, 상업가, 원주민들로 구성되었었고, 식민 도시 건설 초기 원주민들은 격자형 도심 내의 솔라르에 가까운 농장에 거주했다.

하지만 1571년 격자형 도심 외곽의 동쪽에 원주민 집성지인 세르카도 텔 인 디오스 데 산티아고(Cercado de Indios de Santiago, 이하 세르카도)가 형성¹²⁾되면서, 원주민들은 이 집성지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Khahatt, 2014: 38; Coronado, 2017: 64). 즉, 세르카도는 식민지 시기 원주민이 사회·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거주한 원주민 집성지이다. 이와 같은 원주민 집성지를 형성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특정 지역에 원주민을 집성시켜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이들로부터 재정적 소득을 더욱 쉽게 확보하기 위한 것

11)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청과 함께 식민지에서의 스페인의 주요 식민 통치 기관으로 최상급 재판소의 기능과 더불어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했다(우덕룡 외, 2000: 165).

12) 세르카도 이외에도 1562년 리막 강 북쪽 변에 또 다른 집성지인 바리오 텔 산 라사로가 형성되었다. 이 집성지는 리마에서 나병이 발병한 후 흑인과 원주민의 집성지로 형성되었다(Giráldez, 2015: 64). 1590년경에는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세르카도로 이주하기도 했다(Coronado, 2020: 40).

이었다(Giráldez, 2015: 62)¹³⁾. 세르카도 형성 이후 원주민들은 오전에는 격자형 도심에 있는 만사나의 농장에서 식민 권력층을 위해 일하고, 저녁에는 주거지인 세르카도로 돌아갔다. 식민 권력은 세르카도와 같은 원주민 집성지를 격자형 도심 외곽에 형성함으로써 스페인 식민 권력과 원주민들을 인종적, 공간적으로 분리하고자 했다(Coronado, 2020: 39). 원주민 집성지는 격자형 도심과 달리 공간 면적이 작았고, 그곳에 사는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좁은 공간을 공유해야 했다(Giráldez, 2015: 70-71).

한편, 격자형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화는 교회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형성한 5개의 교구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Coronado, 2020: 86). 주요 교파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토지 주변 혹은 원주민들이 집성지로 이주하고 남겨진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교구를 형성했다(Coronado, 2020: 86-87)¹⁴⁾. 교구 형성과 함께 격자형 도심 외곽에 건설된 광장 및 작은 광장들을 중심으로 마당 극장(corral de las comedias), 도살장(matadero), 시장 등이 형성되기도 했다(Coronado, 2017: 64). 이처럼 원주민 집성지와 함께 리마 외곽지역을 형성했던 교구들은 식민시기 교회가 사실상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18세기 중반의 부르봉 개혁으로 식민 도시의 토지 획정이 교구에서 지구(cuartel)로 전환되면서 토지에 대한 교회의 권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Coronado, 2020: 8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 식민지배의 거점으로서 리마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사이 식민 본국과의 상업 무역의 발전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과 함께 리마 식민 당국의 걱정도 배가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원주민들의 반란이 지속되었고, 초기 정복자들 간의 내전이 발발하기도 했다(Coronado, 2020: 40).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문제보다 식민 당국을 더 걱정

13) 이후 이 집성촌은 리마 성벽이 건설되면서 일부만 리마 성벽 내부에 포함된다(Tarazona, 2021: 64).

14) 이는 17세기 말경 토지 분배와 관련해서 인디아스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방증한다(Coronado, 2020: 86-87). 가톨릭교회가 격자형 도심 외곽지역을 차지하면서 점차 외곽 마을들은 무질서하게 성장했다.

시킨 문제는 리마 주변에서 빈번하게 출몰하는 해적의 위협이었다. 대표적으로 1579년 영국 출신의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 1615년 요리스 반 스피엘베르겐(Joris van Spielbergen) 등의 위협이 있었다(Coronado, 2020: 44).

이 때문에 식민 당국에선 스페인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리마를 해적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리마 시민의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세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Coronado, 2017: 63-65; Tarazona, 2021: 64). 물론, 해적 대부분은 리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카야오(Callao) 항에서 전투를 치르는 데 그쳤지만, 외부로부터의 빈번한 위협은 리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Tarazona, 2021: 64). 하지만 성벽 건설에 대한 논의는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7세기 중반 리마의 식민 경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당시 리마의 권력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Coronado, 2017: 65). 이미 카리브해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성벽을 지은 경험도 리마의 성벽 건설 논의를 가속하는데 일조했다(Coronado, 2017: 64-65). 결국, 리마의 권력자, 종교 지도자, 귀족들은 성벽을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성벽 건설의 필요성을 부왕에게 호소했다(Coronado, 2017: 65; Tarazona, 2021: 64).

이러한 리마 엘리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왕 멜초르 데 나바라 이 로카폴(Melchor de Navarra y Rocaful, 이하 멜초르: 1681~1689년 재임)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의 식민 거점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리마 성벽 건설안을 공모했다. 최종적으로 부왕은 기술적·재정적 이유로 후안 라몬 코닉(Juan Ramón Coninck)의 성벽 건설안을 받아들였다(Coronado, 2020: 44-46). 결과 부왕 멜초르의 지지 하에서 리마 성벽은 1684~1687년 사이 건설되었다(Cárdenas, 2020: 27). 이렇게 건설된 리마 성벽은 총 길이 11,466m로 5,059,600 평방미터의 공간을 둘러쌌다. 높이는 3.1~2.2 m 정도였고 넓이는 2.5 m였으며, 5개(Guadalupe, Callo, Cocharcas, Barbones, Maravillas)의 성문¹⁵⁾과 34개

의 축성이 만들어졌다(Coronado, 2017: 65; Tarzona, 2021: 64).

17세기 말 리마 방어 목적으로 건설된 성벽은 결과적으로 식민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성벽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성벽 건설과 함께, 식민 당국은 리마 성벽 내부 도심으로 진입하는 사람과 상품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진입세를 받아 공공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Coronado, 2017: 66). 또한, 리마 도심 공간으로 유입되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역할도 했다(Coronado, 2017: 71). 도시 공간의 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 성벽이 건설되면서 격자형 도심과 도심 외곽의 교구와 더불어 성벽 주변의 외곽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도심에서 성문으로 향하는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경작지였던 공간이 상업 활동 공간으로 변모했다(Coronado, 2017: 52).

이처럼 17세기 말 리마 성벽의 건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리마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19세기 중반 성벽이 철거될 때까지 리마의 물리적 경계를 확정하고, 리마 도심 내부의 도시화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성벽 건설 이후 리마의 성장세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서 리마 성벽은 기존의 방어 목적의 중요성을 점차 잃게 되고, 인구 과밀과 그에 따른 위생문제의 원인으로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는 격자형 도심과 원주민 집성지, 도심 외곽의 교구와 리마 성벽으로 특징지어지는 식민 도시 리마가 근대 도시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리마 성벽 철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리마 성벽의 철거: 도시 근대화의 전환점

1. 배경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7세기 초 1만 4천여 명에 불과했던 리마 인구는 18세기 초 3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18세기 중반이 되면 5만 4천 명으로

15) 성문은 이후 5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Coronado, 2020: 47).

급증한다. 17~18세기 사이 리마의 인구 성장은 자연발생적인 이유도 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리마로의 인구 유입과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Coronado, 2020: 60). 18세기 중반 스페인 제국의 통치권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게 되었다. 16~17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식민지 본국과 아메리카 식민 거점 간의 독점적 무역만 허용했었으나, 1778년 부르봉 스페인 제국은 자유 무역법(Ley de Libre Comercio)를 통해 역내의 자유 무역을 허용했다. 케이프 혼(Cabo de Hornos, Cape Horn)을 통한 자유 무역이 허용되면서 교역이 증가했고, 이는 무역 거점 지역 중 한 곳이었던 리마의 도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Coronado, 2020: 89).

〈표 1〉 17세기~19세기 말 리마 인구 변화

년도	인구수(명)
1600	14,262
1700	37,259
1755	54,000
1791	52,627
1877	89,434

출처: Coronado (2020)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당시 리마는 1687년 완성된 성벽의 존재로 인해 도시의 경계가 지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은 성벽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지역과 리막 강변의 도시화를 동반하기도 했다(Coronado, 2020: 89). 18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밀도가 증가, 성벽 내 토지 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거지 밀집과 위생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식민 도시 건물들은 파손 및 마모되기 시작했다. 당시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도시 상황은 식민 행정과 종교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건설했던 도시 구조와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한편,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일련의 독립운동의 물결 속에서 1821년 7월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장군이 리마에 입성하면서

페루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했고, 같은 해 8월 4일 법령에 따라 리마는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Cárdenas, 2020: 29)¹⁶⁾. 독립 이전인 18세기 중반에 실시된 부르봉 개혁으로 리마는 도시 근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독립 이후 리마는 그 구조나 도시 주거지 및 인프라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즉, 19세기 중반까지 리마는 여전히 식민시기의 도시 구조(격자형 도심과 5개의 교구)를 큰 변화 없이 유지했다(Tarazona, 2021: 64). 19세기 중반까지 페루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우디오(caudillo)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었고,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다(Tarazona, 2021: 61).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리마 시민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열악해져 갔다. 19세기 초반 이촌 향도, 외국인의 이주 등으로 리마의 인구 밀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만사나의 분화와 대중 주거지의 한 종류인 카예혼(callejón)¹⁷⁾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식민시기 리마 격자형 도심을 구성한 117개의 만사나는 18세기를 거치면서 175개에서 211개로 분화했다(Coronado, 2020: 97). 도심 외곽지역에서도 토지 분획이 지속하였고, 도심과 도시 외곽의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립 이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생존이 막막해진 식민 엘리트들은 도시에 있던 자신의 집들을 임대하면서 도심에서의 슬럼화에 일조했다. 하지만 점차 도심의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기도 했다(Coronado, 2020: 97-98).

이러한 상황은 리마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를 거치며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게 되는 주된 동력을 제공했다. 즉,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게 형성되었던 도시 구조는 리마의 급격한 변화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 이후 그 특징과 속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 전반적으로 나

16) 산마르틴의 군대가 파라카스(Paracas)만에 도착(1820년)해서 1821년 리마 메인 광장(Plaza de Armas de Lima)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1824년 아야쿠초(Ayacucho)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안데스 지역에서의 부르봉 왕가의 지배에 마침표를 찍었다(Orrego, 2018: 31).

17) 카예혼은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한 주거지로 협소한 골목에 좁은 주거 공간이 집합한 다주택 주거지를 일컫는다. 카예혼은 다가구가 사는 주거지이지만, 입구는 하나의 공동 입구로 구성되어 있다(Condeso, 2019: 12).

타난 형상이었다. 리마의 경우,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은 두 개의 동력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인구 밀도 증가에 따른 주거지 부족과 위생문제라는 도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당시 유럽과 북미에서 전개되고 있던 근대화와 진보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엘리트들의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리마가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동력이 담론으로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두 번째 동력, 즉 엘리트들의 근대화와 진보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엘리트들의 근대화와 진보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페루가 구아노(guano)¹⁸⁾ 무역으로 약 20여 년간 경제 성장을 구가하면서 부터였다. 1842년 이후 구아노 붐으로 국가 예산이 충족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도시 공공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다(Coronado, 2020: 107). 이러한 경제적 부흥으로 정치적 안정도 확보되면서 정치 엘리트들의 진보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근대 사상이 확산하였으며, 이 시기 리마로 외국인들의 이주가 이어지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Tarazona, 2021: 61). 특히 아래에서는 리마의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리마 성벽 철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위생주의와 리마 성벽의 철거

근대 도시 계획의 모태로 평가되는 영국의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1848년)은 공중보건과 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건조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김홍순, 2017: 80). “산업화의 공간적 발현”이 도시화라고 한다면, 19세기 산업화가 한창이던 유럽에서 도시의 과밀화와 슬럼화, 열악한 노동조건, 부실한 영양 상태, 수인성 전염병 등과 같은 도시

18) 구아노는糞糞類 한류가 흐르는 페루 근해인 태평양에 위치한 섬에서 누적된 새똥이 인산염이 풍부하여 비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19세기 중반 페루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페루 정부는 1841년부터 구아노를 개발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남서부 등지로 수출했다(블루엣 & 블루엣, 2013: 130).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대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김홍순, 2017; 조재성, 2020). 도시 문제라는 사회적 현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토대로 한 도시 계획이라는 근대적 대응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김홍순, 2017: 71). 도시 문제의 발생과 이에 대한 근대적 대응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던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이었다. 프랑스에서도 도시화에 따른 공공 위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세기 전반기에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의 비위생적인 주거 및 노동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 위생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민유기, 2007: 157). 이러한 배경에서 1832년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대중들의 공공 위생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위생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민유기, 2007: 156-157). 이들의 활동과 함께 프랑스에서도 1902년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위생주의는 19세기 전반기 병과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 운동으로 일차적인 도시 문제인 빈곤, 인구 밀집, 물 공급 문제, 하수도 문제 등 병과 전염병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를 인식, 이와 더불어 도시민의 행동 개선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Salaverry, 2017: 140). 위생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위생주의자들은 “19세기 내내 위생의 육체적, 정신적, 의학적,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생 개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민유기, 2007: 156-157). 이들은 “공중보건 운동을 주도하고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 공중보건 법률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민유기, 2007: 157).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19세기에 들어 도시 인구가 밀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생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유럽의 파리, 빈, 베를린, 바르셀로나, 런던과 미국의 뉴욕 등 지에서의 번영이 라틴아메리카 과두 지배계층의 주목을 받았다(Sánchez, Ruiz, 2020: 34). 이들에게 진보와 근대화는 발전된 유럽과 미국 모델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엘리트 계급의 번영은 국가의 번영과 동일시되었다(Sánchez, Ruiz, 2020: 34).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의사, 기술자, 건축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유럽의 이론, 기술, 방법, 법, 행정 등을 수용하고 현지화하기 시작했다

(Sánchez, Ruiz, 2020: 31-32). 특히 도시 위생 환경과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상하수도 공급 체계, 도로포장, 여가 공간, 주거 공간, 상업과 산업 공간 등의 확보 등으로 이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Sánchez, Ruiz, 2020: 32). 즉, 이 전문가들에게 위생은 자선 기관과 보건 기관을 확보하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상하수도를 공급하고, 도로포장, 공공장소 형성, 장비/설비 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했다(Sánchez, Ruiz, 2020: 35).

한편, 리마의 도시 근대화의 시초 역시 도시 내 위생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초는 18세기 중반의 부르봉 개혁 시기였다. 부왕 마누엘 데 아맛 이 후니엔(Manuel de Amat y Junient, 1761-1776년 재위)시기 리마의 도시 개혁이 시작되었고, 1784년부터 부왕 테오도로 데 크로익스(Teodoro de Croix)는 부왕령의 근대화 캠페인을 실시했다(Cárdenas, 2020: 28)¹⁹⁾. 부르봉 개혁과 함께 시작된 리마의 도시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동묘지(Cementerio General, 1808)의 건설이었다. 식민시기 동안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 묻었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리마의 관료들은 위생을 이유로 무덤을 교외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묘지는 성곽 외곽 동쪽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Cárdenas, 2006: 462-463; Joffré, 2004; Joffré, 2007). 하지만, 부르봉 개혁 시기에 시작된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수년간 활력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스페인 제국이 쇠락하면서 점차 군사적 방어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초 독립 이후에도 정치·경제적 겪었던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19세기 중반 구아노 붐 시기에 이르러서야 재개되기 시작했다(Joffré, 2007: 14).

도시 성장과 함께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도시 문제들은 부르봉 개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 사이 부르봉 개혁을 통해 교회의 토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줄이고, 일련의 근대적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근대적 건물로는 닭싸움장(Coliseo de Gallos, 1762), 투우장(Plaza de Toros, 1780) 등의 건설 등이 있다(Joffré, 2007: 13). 이러한 건물들은 이전 시기 도시 곳곳에서 이뤄지던 활동들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세기 초부터 위생주의자들과 의사들이 도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808년 리마에서는 의료 학회(Colegio de Medicina)가 만들어졌으며, 1812년에는 페루 최초의 위생 규정(el primer Reglamento de Higiene)가 제정되었다(Coronado, 2020: 79).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리마의 위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 도시 상하수도관이 부족하여 물 오염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취약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쉽게 전염병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었다(Cárdenas, 2006: 461; Coronado, 2020: 123-124).

이처럼 19세기 중반 리마의 도시 환경이 나빠지고 질병과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위생주의자들이 도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실제 1868년 황열병의 확산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처하면서 성벽 철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870년경 리마의 인구는 더욱 증가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심 공간은 증가한 인구를 견뎌내기 어려웠으며,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Orrego, 2018: 32). 황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리마의 자선 협회(la Sociedad de Beneficencia Pública de Lima)는 보다 현대적인 병원을 지을 것을 건의했고, 1868년 호세 발타 대통령 취임 후 도스 데 마요(Dos de Mayo) 병원을 개원했다(Navarro Jiménez, 2017: 6; Orrego, 2018: 32). 그리고 황열병 확산 1년 후인 1869년 성벽 철거가 결정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 실증주의 철학, 정치·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공중위생과 도시 진보의 개념이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성벽의 현실에 대해 엘리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Tarazona, 2021: 66). 1856년 리마 최고(古)의 대학인 산 마르코스(San Marcos) 국립대학교 의대 의사들이 위생 관련 잡지인 라 가세타 데 리마(La Gaceta de Lima)를 발간했다. 이들은 제2 세대 위생주의자들로 분류되는데, 주로 공중위생과 공중보건 과학을 알리고 주민에게 위생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Coronado, 2020: 124). 이들은 특히 도시 환경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기본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리마 강의 오염 문제와 상수도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Coronado, 2020: 125-126). 이처럼 위생주의자들은 도시 근대화 과

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현상은 리마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이들의 개입과 함께 제정되었던 도시 관련 법제들은 같은 시기 멕시코 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도시에서도 제정되었으며, 이후 보다 복합적인 도시 계획과 근대화가 진행되기 전 도시 근대화의 중요한 주춧돌을 세웠다(Sánchez, Ruiz, 2020: 40). 이러한 배경에서 1869년 호세 발타(José Balta) 대통령은 법령을 통해 도시 밀집과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벽 지역 위생 평가 위원회(La Junta de Sanidad)을 조직했다(Sánchez, Ruiz, 2020: 38; Coronado, 2020: 127).

1684년에서 1687년 사이 해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건설된 리마 성벽은 스페인의 식민지배 거점의 내외부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식민 도시 리마의 경계와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하지만 200여 년이 지나는 과정에 리마가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리마 성곽은 위생문제를 비롯한 도시의 각종 문제의 온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위생주의자들의 활발한 활동에 더해 1869년 호세 발타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리마 성벽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Mazuré, 2011; Aguirre, 2016: 55; Navarro Jiménez, 2016: 39-40). 공중위생 문제와 더불어 19세기 구아노 붐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엘리트들의 도시 근대화와 진보에 대한 열망이 성벽 철거라는 결정으로 반영되었다(Coronado, 2017: 72). 1869년 12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발타 대통령은 성벽 철거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은 6가지로 나열했다(Coronado, 2020: 134-136).

- 이유 1: 도심 밀집도 증가로 인해 주거지 임대료 상승에 대처할 필요성
- 주거지 건설을 위한 도심 외곽지역 이용의 필요성
- 이유 2: 인구의 증가 및 도시 성장에 필요한 도시 공간 확보의 필요성
-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 이유 3: 도시 근대화, 진보, 발전을 통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성
- 정부는 수도의 발전과 복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앨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이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보장해야 함.

- 이유 4: 인구 통계를 통한 정당화에 기반해 도시 확장 필요성 강조
 - 인구 재배치를 통해 도시 과밀을 줄이고 도시의 질병을 줄일 필요성
- 이유 5: 공공사업의 필요성
 - 도시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산업 허용 위함
- 이유 6: 위 문제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성곽 자체의 문제
 - 방어의 필요성이 낮아져 성곽 자체가 더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이처럼 성벽 철거 결정의 배경에는 공중위생의 문제와 더불어 엘리트들의 근대화 열망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성벽 철거²⁰⁾ 작업이 1872년 완결된 이후 리마가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리마 성벽의 철거는 단순히 리마의 물리적 면적을 확장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또 다른 근대성을 의미하는 공공 위생의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당시 리마인들은 성벽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었으며, 이 때문에 공기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었다(Orrego, 2018: 31-32). 아래에서는 리마 성벽 철거와 더불어 어떻게 리마가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도시 공간과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V. 근대 도시 전환기 리마의 공간과 기능 변화

1. 성벽 철거 이후 리마의 공간 변화와 공간 개발의 주제 변화

1860년대 말경에 이르면 정부와 엘리트들의 도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높아졌지만, 구아노 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도시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 재정은 파탄이 난 상황이었다. 호세 발타 정권(1868년~1872년 집권) 이전까지 구아노는 정부가 소유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위탁 판매자를 통해 유럽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페루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구

20) 성벽의 성문 중 2개의 성문(portadas de Maravillas y del Callao)는 철거하지 않은 채 남겨졌다. 그 이유는 그 위치의 중요성과 기능 때문이었다(Navarro Jiménez, 2017: 6).

아노를 위탁 판매하는 무역상들은 수수료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구아노 붐 기간 정부는 이들 구아노 위탁 판매상에게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위탁 판매상과 정부 간의 결탁 관계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1860년대 경이 되면 위탁 판매상의 입장에서 정부의 국채를 통해 확보하는 이익이 구아노 판매를 통한 수수료 수익보다 더 안정적이고 많았기 때문에 구아노를 빨리 매매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했다(Olinger, 1980: 14). 따라서 구아노 붐 시기의 정부 재정은 위탁판매업자들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호세 발타가 집권하면서 구아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권은 재정 상황에 대한 반전을 꾀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스 데 피에롤라(Nicolás de Piérola)의 제안으로 구아노 위탁 판매제를 폐지하고 계약 판매제를 시행하고자 했다. 즉, 200만 톤의 구아노를 매매할 수 있는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부는 판매자로부터 매달 고정된 수수료를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계약 판매자가 정부의 외채 이자 상환의 일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파탄지경에 이르렀던 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을 꾀했던 것이다(Olinger, 1980: 15). 이러한 정부 개혁안에 위탁 판매자들의 반발이 거세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870년 의회는 드레이퍼스(Dreyfus)와의 구아노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아노 매매 방식의 변화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 1870년대에 접어들면, 구아노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초석(Nitrate)이 구아노를 대신할 비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구아노 매매에 종속된 정부의 재정으로 인해 오히려 페루의 대외 채무는 한층 더 증가했고, 그 결과 1872년 페루는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다(Coronado, 2020: 141; Tarazona, 2021: 68).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리마는 여전히 위생 및 주거 문제 등 산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Coronado, 2020: 16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 도시 공간은 주로 교회가 통제 관리했는데, 특히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교구 형성을 통해 교회가 토지를 통제해왔다.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식민 경제가 쇠퇴하면서 교회는 가산을 구획을 나눠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시작했다(Panfichi, 2004). 이때부터 일부 엘리트 가문은 교회가 자

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예를 들어 원주민 집성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도 했다(Panfichi,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까지 리마는 여전히 격자형 도심 구조를 유지해왔다(Navarro Jiménez, 2017: 3). 하지만 발타 정부하에서 리마 성벽 철거가 진행되면서 리마의 도시 공간도 물리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성벽이라는 물리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도심 외곽지역(Periferia) 개발에 대한 민간 자본의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의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 개발의 이니셔티브를 민간에 넘겨주었기 때문이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헨리 메이그스(Henry Meiggs)이다.

정부는 파탄지경에 이른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산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성벽 철거로 물리적 경계가 사라져 확장된 리마의 도시 개발과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꾀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칠레 철도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리마로 넘어온 헨리 메이그스는 페루의 각종 공공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요 자산가로 자리 잡았다. 발타 정부는 ‘철도 건설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철도 건설 사업을 진행했는데, 철도의 건설이 페루가 봉착해있던 경제 성장의 정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²¹⁾. 이미 칠레에서 철도 건설에 성공을 거둔 후 페루 남부의 아레키파(Arequipa) 철도 건설 입찰을 위해 페루로 넘어온 메이그스는 발타 정부가 진행한 리마 성벽 철거 사업에도 참여하였다(Tarazona, 2021: 68). 메이그스는 성벽 철거과정에서 페루 정부의 용인하에 리마 도심 외곽 토지 자산의 상당 부분 확보하게 되었고 리마 도심 외곽 개발의 독점적인 투자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통한 도시 근대화 사업을 지원했으며, 메이그스는 성벽 철거과정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공매받았다(Coronado, 2020: 140-141). 그는 이윤을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철도 건설, 광산 개발, 공공건물

21) 페루의 근대화 발전이 더딘 것은 지형적 조건에 따른 물자의 이동이 어려운 이유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의 발전을 위한 물리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건설 등 수많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Tarazona, 2021: 68).

특히 메이그스는 성벽 철거 이후, 도심 외곽 토지 시장에서 유일한 입찰자로 토지 공매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는 1872년 페루 정부가 시행한 토지 수용법의 혜택을 받은 결과이다. 1872년의 토지 수용법 제정 이후 페루에서는 민간 자본을 통한 독점적 토지 시장과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Coronado, 2020: 141, 165). 특히 1872년~1877년 사이 메이그스는 도심 외곽지역의 부동산을 독점했고, 이는 페루에서 막 시행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가능했다(Coronado, 2020: 215-216). 결국, 리마의 성벽 철거와 함께 진행된 도심 외곽 지역 개발은 정부의 재정적 능력 결여로 민간 자본의 투자에 맡겨졌고, 정부의 법적 지원 아래 메이그스의 주도로 독점적이고 투기적인 토지 시장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Coronado, 2020: 165-166).

2. 근대 도시 계획과 도시 공간의 기능 변화

한편, 리마에서 도시 공간의 근대화는 구아노 붐 시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특히 라몬 카스티야 정부(Ramón Castilla, 1858~1862년 2기 정부) 하에서 시장, 도살장, 감옥 등 현대적인 공공건물이 도시에 들어섰다. 하지만, 성벽이 철거되기 이전에는 도심 외곽지역에서의 공공 인프라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Coronado, 2020: 113). 1850~1860년대 리마의 근대 공간 형성은 주로 리마 성벽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1852년 중앙시장 형성(Tarazona, 2021), 볼리바르 광장(과거에 종교 재판광장(Plaza de la Inquisición)으로 불렸음)에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기념비 설치(1859), 리막 지역에 있는 작은 공원인 알라메다 데 아초(Alameda de Acho)에 콜럼버스 기념비 배치(1860), 메인 광장(Plaza de Armas)의 현대화(1860) 등이 진행되었다(Orrego, 2018: 31). 이와 더불어 1855년 가스 회사(Fábrica del Gas)가 건설되면서 도시에 전력이 공급되고, 전보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Tarazona, 2021: 66).

하지만, 리마의 도시 공간이 본격적으로 근대적 공간으로 변모한 것은 리마 성벽이 철거된 시기를 전후해서였다(Orrego, 2018: 31). 리마 성벽 철거와 함께

도시 공간의 확장, 도시 내 주거지, 공장 지역, 광장 등의 기능적 재배치와 새로운 기능 공간(상업, 산업, 금융 등)의 형성, 새로운 교통망(전차, 기차, 대로 등) 형성, 전기, 상하수도망, 통신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Navarro Jiménez, 2016: 5-6). 성벽 철거 이후 도시 계획에는 주거지, 철로, 교통망, 광장, 가로수 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식민 도시의 전통과의 단절과 근대화의 목적이 담겨 있었다(Navarro Jiménez, 2017: 4). 본 연구에서는 특히 리마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계획과 독립 50주년 기념 국제 박람회를 전후한 도시 공간의 성격 변화, 철도망의 형성을 중심으로 리마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전통적인 식민 도시와 단절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리마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계획(Plan de Ensanche)은 이탈리아 출신의 농학 기술자인 루이스 사다 디 카를로(Luis Sadá di Carlo)의 도시 계획안에 기원을 두고 있다. 1869년 사다(Sadá)는 페루 정부와 계약하고 1870년~1873년 사이 도시의 디자인을 담당했다(Coronado, 2020: 151). 1871년 승인된 사다의 도시 계획안은 이후 정부의 재정 파탄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모두 실현되지 못했지만, 전후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도시 근대화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했다(Coronado, 2020: 156; Coronado, 2017: 71; Joffré, 2007: 17).

사다의 도시 계획안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19세기에 더욱 가시화된 도시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밀집을 줄이기 위해 도심 외곽지역을 개발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Coronado, 2020: 151). 특히 리마 성벽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사다는 도시 계획안에 대로와 가로수 길 건설 등의 계획을 포함했다. 사다의 도시 계획안은 당시 유럽의 도시들, 특히 제2 제정기의 파리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스만의 파리 개조계획과는 달리 도심을 그대로 두고 도심 주변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제2의 리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했다(Orrego, 2018: 32)²²⁾. 특히 사다의 도시 계획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성벽이 철거된 이후 도심과 도심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대

22) 도심 외곽 지역 개발은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에서 진행된 구도심 보존 도시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바르셀로나(1854), 세비야(1863), 발렌시아(1865), 쿠바의 아바나(1863)의 성벽 철거와 이후의 도시 계획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Orrego, 2018: 32).

로와 가로수길, 그리고 공공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었다(Coronado, 2020: 155; Tarazona, 2021: 70). 이러한 특징은 식민 도시 리마의 외형에 근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도로망 형성은 성벽 내부에서 격자형 도심 구조를 유지해온 식민 도시 리마의 물리적 공간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도였으며, 식민시대 종교적 성격을 유지해온 공공 공간은 엘리트와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Coronado, 2020: 153). 물론 사다의 도시 계획안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성격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속화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였지만, 1870년대 초 기초적인 형태를 살필 수 있다.

한편, 1872년 리마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를 전후한 일련의 도시 변화는 독립 50주년이라는 공화국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부왕령의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박람회는 1851년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일국의 사회적·물질적 진보를 전시 혹은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국제 박람회를 국가 근대성의 전시장으로 활용한 유럽의 경험은 19세기 막 성장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부르주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Orrego, 2018: 34). 리마에서는 1869년 7월 리마 시정의 주도로 성공적인 산업 박람회를 치른 후,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페루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다. 1872년의 국제 박람회는 당시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진행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페루가 풍부한 자원, 발전된 수공업 기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전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엘리트들에게 유럽에 버금가는 진보를 이루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다(Orrego, 2018: 36).

특히 국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궁전(Palacio de la Exposición)과 공원(Parque de la Exposición)을 건설했다(Mazuré, 2011; Cárdenas, 2020: 31). 국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마 도심 남부에 대규모의 공원을 건설하여 다양한 종류의 페루 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1869년 8월 호세 발타(José Balta) 대통령은

법령을 통해 궁전과 공원을 건설할 것을 명했다(Orrego, 2018: 33). 이후 궁전은 리마 예술 박물관(Museo de Arte de Lima)로 운영되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되어온 유물을 전시하는 페루의 역사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²³⁾. 역사 기억의 관리와 전시는 근대 국가의 민족주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데, 페루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은 페루의 역사적 기억을 더 나은 장소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전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Orrego, 2018: 36). 특히 궁전은 정복 이전의 과거를 수용하고 독립 국가로서의 페루의 주권의 정당성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유물들은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Orrego, 2018: 37).

한편,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이 자리한 국제 박람회 기념 공원의 경우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Orrego, 2018: 33)²⁴⁾. 이러한 목적에서 건설된 국제 박람회 기념 공원에는 광활한 녹지 공간과 함께, 다양한 파빌리온, 동물원, 작은 호수들, 분수 등이 배치되었으며, 메인광장을 대체할 만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Orrego, 2018: 34).

도시의 새로운 공공 공간과 더불어 교통망의 형성은 식민 도시 구조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리마에서 철도, 도로, 전차²⁵⁾ 등의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식민시기의 격자형 도심 구조가 변화

23)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이 건설되기 이전 페루의 유물은 국립 도서관(Biblioteca Nacional)에서 보존되고 있었으나, 관리 상태가 열악하기도 했고, 주로 스페인 정복 이전의 물품들을 주로 보존해왔다(Orrego, 2018: 17).

24) 리마 국제 박람회 기념 공원은 당시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에서 생겨나던 대규모 시민 공원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대표적으로는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공원(Saint James Park)과 하이드 공원(Hyde Park), 파리의 룩셈부르크 정원(Jardin du Luxembourg), 마드리드의 레티로 공원(Parque del Retiro), 뉴욕의 센트럴 공원(Central Park), 멕시코의 차풀테펙 공원(Bosque de Chapultepec), 칠레 산티아고의 오히긴스 공원(O'Higgins Park),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레르모 공원(Bosque de Palermo) 등이 있다(Orrego, 2018: 34).

25) 리마에서는 1806년 전차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총 7개의 루트, 40km가 연결되었다

하기 시작한다. 특히 19세기 중반 구아노 붐 시기 본격화되기 시작한 철도망의 건설²⁶⁾과 대로망의 형성은 성벽이 철거되면서 리마의 물리적 공간의 확장을 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이미 도심의 밀집과 위생 환경의 악화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도시 중산층의 교외화 현상을 가속했다. 성벽 철거와 함께 사다의 도시 계획안에 식민 격자형 도시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련의 대로와 광장 건설이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다(Joffré, 2007: 22-3). 하지만 사다의 계획안과 같은 대로가 건설된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정, 특히 1920년대 현실화하였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망의 건설에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페루에서 첫 번째 철도 건설이 시도되었던 것은 1826년 리마-카야오 간 철도 건설안이었지만,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현실화하지 못하다가 구아노 붐에 접어들게 되는 1845년 라몬 카스티야(Ramón Castilla) 정권 시기에 들어서서야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제안되었다(Pennano, 1979: 136). 1848년 리마(Lima)-카야오(Callao) 간 철도 건설안이 승인되었고, 1850년 건설을 시작하여 1851년 개통되었다. 페루의 철도는 주로 민간 자본의 투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율이 높은 주요 도심들을 중심으로 노선이 형성되었다(Pennano, 1979: 136). 이 때문에 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건설되었다. 리마-카야오간 철도는 카야오항이 가지고 있던 상업적 금융적 기능을 리마로 옮겨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Pennano, 1979: 136). 리마-카야오 간 철도가 성공을 거두면서 1856년 리마 도심에서 도심 외곽의 해변 지역을 따라 리마-초리요스(Chorrillos) 간 철도 건설을 시작했고, 1858년 완공되었다. 원래 종착

(Panfichi, 2004). 특히 전력망이 공급되면서 리마(Lima)-초리요스(Chorrillos) 간 전차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Navarro Jiménez, 2017: 14).

26) 페루의 철도망 건설은 호세 발타 정부를 전후한 시기를 출발점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세기 말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페루의 철도망은 주로 광산, 농업 지역과 같은 주요 생산지역과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형태로 건설되었다(Pennano, 1979). 본 연구는 리마의 도시 물리적 공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리마 내의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살펴본다.

역인 초리요스는 어부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리마의 부유층이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와 바라코(Barranco)와 함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선호해오던 지역이었다(Cárdenas, 2020: 30). 초리요스까지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초리요스는 급격히 성장했고, 주변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출신의 이민자들은 미라플로레스와 초리요스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정착했다(Cárdenas, 2020: 30). 1875년에는 리마와 마그달레나(La Magdalena) 남부 해안도 철도로 연결되었다(Aguirre, 2016).

이처럼 페루 성곽 철거를 전후하여 리마의 도시 공간은 그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근대화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먼저 도시 공간은 식민 통치와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재현 공간에서 근대 국가가 계획하고 근대적 통치성을 발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사다의 리마 최초의 근대 도시 계획안의 내용은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 박람회 개최를 전후하여 리마에는 근대적 도시 공간이 상징적으로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은 근대 국가의 역사 기억의 관리와 전시 공간으로, 국제 박람회 기념 공원은 리마의 공공 공간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았다. 또한, 성벽 철거 이전 격자형 도심 구조에 제한되었던 도시 구조는 물리적 제한이 사라지고 철도와 같은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변화했다. 특히 남부 해변 지역으로 철도망이 형성되면서 중상층의 주거지의 교외화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1850~1870년대 사이 리마의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1879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특히 태평양 전쟁 기간 중인 1881~1883년 사이 리마는 칠레군에 점령되어 폐허가 되었다(Joffré, 2007: 18; Cárdenas, 2020: 32). 리마가 태평양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여 근대화를 재개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0~1870년 사이 리마 성벽 철거를 전환점으로 시도되었던 도시 근대화는 20세기 초 본격적인 근대화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리마는 식민 도시의 공간과 기능을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1850~1870년대 리마가 그 도시 공간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1535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건설된 리마는 지리적 위치, 경제적 중요성 등으로 인해 스페인령 남아메리카에서 식민지배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식민 도시 리마의 도시 구조는 식민지배 권력과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식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 리마의 도시 구조는 격자형 도심, 두 개의 원주민 집성지, 5개의 교회 교구가 위치한 도시 주변부라는 3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7세기 들어 리마는 식민 본국과 식민지 간의 활발한 상업 활동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이에 따라 리마의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리마의 성장은 해적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리마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684~1687년 사이 건설된 리마 성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식민 도시 리마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도시 내부의 도시화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18세기 중반 이후 부르봉 왕가의 지배하에서 자유 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식민 국가 간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 때문에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리마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도시 내 인구 성장에 따른 인구 밀도 증가, 성벽 내 주거 공간의 부족과 주거 공간 내 인구 밀집 문제, 각종 도시 문제 등이 심각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식민 도시 건물들은 파손 혹은 마모된 상태였다. 이러한 리마의 역동적인 변화 상황은 식민 행정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재현 공간으로서 건설된 식민 도시 구조와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리마 성벽은 주거지 부족과 위생문제 등과 같은 리마의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온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마의 도시 구조와 기능은 독립 후 수십 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구아노 수출 붐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페루가 정치·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19세기 중반 경이었다. 이 시기

리마 엘리트들 역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유럽의 산업 도시들과 같은 근대화와 진보를 모방하기를 열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리마 성벽의 존재는 근대화와 진보의 주된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위생주의자들의 힘이 보태지면서 1869년 리마 성벽 철거가 결정되었다.

성벽 철거(1869~1872년)를 전후해서 리마는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식민지배 초기 격자형 도심 내부의 토지는 주로 초기 정복자들과 여러 가톨릭 교파에 분배되었고,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주로 교회가 교구를 형성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벽 철거를 전후하여, 도심 외곽지역으로 철도 등과 같은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주거지의 교외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구아노 붐이 일단락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도시 공간 개발의 주체가 민간 자본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식민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재현 공간으로 형성되었던 도시 공간에는 점차 현대적 건물이 들어서고, 국가의 근대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1872년 국제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기념 궁전과 기념 공원이 있다.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은 페루의 역사 기억의 관리와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념 공원은 새로운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리마는 1850~1870년대 동안 도시 공간과 성격의 측면에서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1879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으로 중지되게 되었고, 1881~1883년 사이 칠레군의 리마 점령으로 도시가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전의 근대 도시 형성의 열기가 재개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 시기 리마의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1920년대 레기아(Leguía) 집권 기간 재개되는 도시 근대화의 중요한 초석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본격적인 리마의 근대화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홍순(2017), 『역사로 읽는 도시이야기』, 보성각.
- 민유기(2007),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심산.
- 블루엣, 브라이언 W.·블루엣, 올린 M. (201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주제별 분석과 지역적 접근』,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 (김희순 외 역). 까치
- 우덕룡 외 (2000), 『라틴아메리카: 마야잉카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 송산출판사.
- 조재성(2020), 『21세기 도시를 위한 현대 도시계획론』, 한울아카데미.
- 하비, 데이비드(2019),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 1830-1871』, Paris, Capital of Modernity (김병화 역). 글항아리.
- Aguirre, M.(2016), *Los cambios urbanísticos de Lima entre los años 1900-1960 por la Influencia de la Industrialización y las Políticas Urbanas*, Universidade Federal da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 Cárdenas, E. Z.(2006), “Los inicios de la higiene en Lima”, *Investigaciones Sociales*, Vol. 16, pp. 459-484.
- Cárdenas, A. S.(2020), “Lima: La indígena, la virreinal, la moderna – Muy breve historia urbana de la Ciudad de Los Reyes”, *Consensus*, Vol. 25, pp. 21-40.
- Condeso, R. A.(2019), *El callejón limeño como principal escenario de difusión del vals criollo a inicios de siglo XX*, Tesis del Bachier,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Coronado, J.(2017), “La Muralla de Lima. Entre las razones para su construcción y demolición”, *Investigaciones en Ciudad & Arquitectura*, Vol. 7, No. 1, pp. 61-74.
- Coronado, J. E.(2020), *La Modernización Urbana de Lima a Fines del Siglo XIX*. Tesis doctoral.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Ciudad de México.
- Giráldez, E. S.(2015), *La Ciudad Progresiva: Una Lectura de los Asentamientos Humanos de Lima*. Tesis Doctoral. 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 Joffé, G.(2004), “La política borbónica del espacio urbano y el cementerio general (Lima, 1760-1820)”, *Histórica*, Vol. 23, No. 1, pp. 91-130.
- Joffré, G. R.(2007), *El Guión de la Cirugía Urbana: Lima 1850-1940*. Ediciones

- Universida Catolica de Chile, pp. 9-33.
- Joffé, G.(2017), “Ilustrar la urbe: planos de Lima borbónica”, *Illapa Mana Tukukuq*, Vol. 7, pp. 63-80.
- Kahatt, S.(2014), “Lima: cinco siglos de orden y caos. Breve recuento de crecimiento y transformación socio-espacial”, *Revista Indexada de Textos Académicos*, Vol. 2, pp. 38-43.
- Mazuré, J. H.(2011), “El Nacimiento de Lima: La Imposición de un Nuevo Orden”, on the w@terfront. Public Art. Urban Design. Civic Participation. Urban Regeneration, No. 19 (February), pp. 23-37. <https://revistes.ub.edu/index.php/waterfront/article/view/18745>.
- Navarro Jiménez, F. J.(2016), *Dejar el Casco Antiguo: Dos Casos de Modernización Urbana en América Latina: Lima y la Ciudad de México, 1895-1910*. Tesis de Maestría. CIDE. Mexico.
- Navarro Jiménez, F. J.(2017), “Del derribo de la muralla a los transvías electrificados: elementos para la moernización urbana de la ciudad de Lima, 1869-1910”, *Revista Bibliográfica de Geografía y Ciencias Sociales*, Vol. 22, No. 1, pp. 1-21.
- Olinger, J. P.(1980), “The Guano Age in Peru”, *History Today*, Vol. 30, No. 6, pp. 13-18.
- Orrego, J. L.(2018), “Lima en la década de 1870, una ciudad para el cincuentenario de la Independencia”, *Historia*, Vol. 2, pp. 30-40.
- Panfichi, A.(2004), “La Urbanización de Lima, 1535-1900”, En: Aldo Panfichi y Felipe Portocarrero (eds.), *Mundos interiores: Lima 1850-1950*. Lima: Universidad del Pacífico.
- Pennano, Guido(1979), “Desarrollo regional y ferrocarriles en el Perú: 1850-1819”, *APUNTE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ol. 9, pp. 131-150.
- Robin, J. and Terzo, F.(1973), *Urbanization in Peru. International Urbanization Survey*, Ford Foundation.
- Salaverry, O.(2017), “Higienismo en el Perú del siglo XIX. Sebastián Lorente y el Catecismo de Higiene”, *Revista Peru Med Exp Salud Pública*, Vol. 34, No. 1, pp. 139-144.
- Sánchez Ruiz, G. O.(2020), “Ciudades latinoamericanas entre mediados del siglo

XIX y principios del XX: del Higienismo al Urbanismo”, *Arquitectura y Urbanismo*, Vol. 41, No. 2, pp. 31-45.

Tarzona, R.(2021), “Génesis política de la modernización de Lima a partir del derribo de la muralla colonial y el nuevo trazado urbano (1870-1878)”, *Tradición*, Vol. 21, pp. 60-71.

서지헌

부경대학교

jihyunseo@pknu.ac.kr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4일

Transition from Colonial City to Modern City: The Case of 19th Century Lima, Peru

Seo, Ji-h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eo, Ji-hyun(2023), "Transition from Colonial City to Modernity City: The Case of 19th Century Lima, Peru",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1), 113-144.

Abstract Founded in 1535, Lima, the capital of Peru, was developed as a colonial stronghold by the Spanish conquistadors and has maintained its colonial character for about 400 years, both in terms of urban structure and function. Even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Spain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maintained its characteristics as a colonial city without much change. By the mid-19th century, however, Lima's colonial urban space began to rupture with a growing population and urban problem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how Lima has changed from a colonial city to a modern city in the period of 1850s and 1870s. The urban space of the colonial c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pace that reflects colonial ruling power and religious ideology and provides convenience for colonial administration. Physically, the Lima Wall, built to defend the city from outside attacks, served as an important perimeter. The Lima Wall, however, began to be recognised as a breeding ground for urban problems after the mid-18th century. For this reason, the demolition of the Lima Wall, which was carried out between 1869-1872, mark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Lima's transformation from a colonial city to a modern city. Around this period, Lima's urban space began to transform from a representation of colonial and religious power to a space where the modern governance of the state was manifested. This transition to a modern city was halted by the Pacific War that broke out in 1879. However, Lima's transformation into a modern city between the 1850s and 1870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lai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urban modernisation in the 1920s.

Key words Colonial City, Modern City, Wall of Lima, Hygienism, Peru